

2024. 2. 23.(금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22일 오전 11:15분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

버스정책과장	강 인 철	2133-2260
정류소관리팀장	김 도 이	2133-2295
노선팀장	박 흥 식	2133-2281
담당자	도 형 태	2133-2296
담당자	노 리 라	2133-2283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9매

서울시, 광역버스 정류소 및 노선 혼잡 개선 대책 시행

- 버스 노선 집중으로 승하차 시 보행 위험·정체 유발 등 정류소 대상...2월부터 연내 본격 추진
- 2.24(토) 명동입구 2개 정류소 신규 운행 개시, 신속 대응·명동남대문세무서 정차 분산 등 집중 관리
- 강남역·신논현역·사당역도 인근 정류장으로 분산 추진...동일 방향 노선 혼잡·승객 불편 해소
- 광역버스 노선 조정을 위해 대광위·경기도와 실무협의체 구성 등 지속적 협의 노력

- 서울시가 높은 통행량으로 보행로 밀집, 안전 우려 등이 발생해 왔던 광역버스 정류소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.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대책은 명동, 남대문세무서(구 백병원) 등을 시작으로 강남, 신논현역 등 그간 높은 광역버스 진입으로 버스열차 현상 등이 상습적으로 발생해 왔던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이뤄져 버스 이용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.
- 시는 이번 ‘광역버스 정류소 및 노선 혼잡개선 대책’을 시행하기에 앞서 혼잡도가 높은 정류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, 정류장 분산 및 노선 조정안을 반영하여 시뮬레이션을 추진하며 사전 과정을 거쳤다.
- 서울연구원이 서울시가 마련한 명동입구 정류장의 분산 재배치 및 노선

조정 적용 등의 대책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, 명동입구 정류소 기준으로 평균 버스 대기행렬이 312m에서 93m로 감소하고, 일반차량 통행 속도도 17.9km/h에서 21.7km/h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혼잡 해소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됐다.

- 또한 남대문세무서(구 백병원) 정류소에 대해서도 승하차 분산 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립대에 의뢰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했다. 현재 명동성당 교차로는 운행 노선의 83%가 경기 버스이며, 중앙차로 집중으로 인한 과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. 분석 결과, 인접 가로변 정류소로 분산 배치할 경우 삼일대로 통행시간이 약 5%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.
- 이에 따라 보행자 간 충돌 등 시민 안전에 우려가 있거나, 상습적인 교통 체증이 나타나는 정류소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곳을 선별해 즉시 개선 대책을 시행한다.
- 주요 혼잡 개선 대책은 ① 계도요원의 배치, ② 정류소 신설 및 조정, ③ 노선 조정 등이다. 연초부터 시작됐던 대책 시행에 이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.
- 첫째, 정류소 인근 지역에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계도 요원을 배치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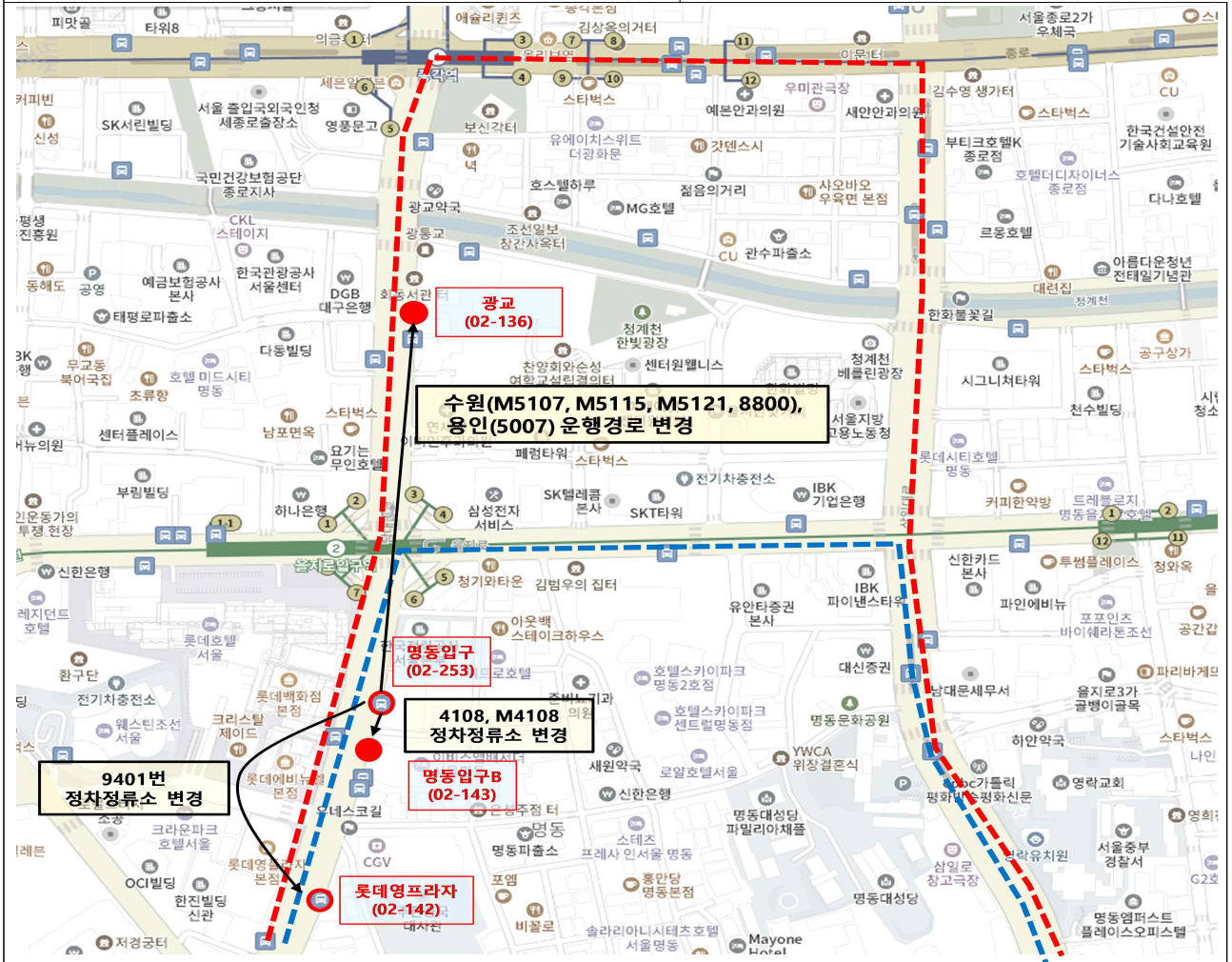
현장 질서를 확립해나간다. 이미 지난 1.8.(월) 명동입구 정류소를 시작으로 현장 계도요원 투입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이며,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의하여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.

- 명동입구, 남대문세무서, 신논현역 금강빌딩·유화빌딩·주류성빌딩 등 광역버스의 통행량이 높은 주요 정류장을 대상으로 이미 계도요원 배치가 완료된 상황이며,
 - 명동입구 정류장 분산을 위해 이번에 신설되는 광고 정류장은 혼잡 개선 대책 시행일인 2월 24일부터 일주일간 계도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.
- 둘째, 광역버스가 밀집해 보행자 혼잡 및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정류장에 대해서는 권역별 현황에 맞춰 정류소 신설 및 위치 조정, 노선 조정 등도 시행한다. 주요 구간은 명동입구, 남대문세무서, 강남역, 신논현역, 사당역 등이다.
- 정류소 내 보행자 밀도가 높을 경우 안전에 위험도가 높으며, 정류소 용량 대비 통행차량이 많을 경우에는 퇴근시간 등 첨두시간대에는 교통체증을 야기한다.
- 명동입구 정류소는 퇴근 첨두시 밀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총 8개의

광역버스 노선을 새롭게 신설되는 인근의 광고 정류소와 명동입구B 정류소 등으로 분산함으로써 정류소 혼잡도를 낮출 계획이다. 신규 정류소는 2. 24(토)부터 운영을 개시한다.

- 정류소 신설 : 광고 정류소(02-136), 명동입구B(02-143)
- 노선 분산 : 8개
 - M5107, M5115, M5121, 8800(이상 수원), 5007(용인) 등 5개 노선을 신설 광고 정류장으로 경로 변경
 - 4108, M4108 2개 노선을 신설 명동입구B 정류장으로 정차 변경
 - 9401 1개 노선을 롯데 영프라자(02-142) 정류장으로 정차 변경

◎ 명동입구 정류소 및 노선 조정시행



□ 남대문세무서(구 백병원) 정류소의 경우에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10개

의 노선을 신설 예정인 명동성당 정류소(가칭)로 이전함으로써 혼잡도를 낮출 예정이다. 명동역 정류장과 마찬가지로 계도요원을 배치해 보행 질서 관리도 지속한다.

- 기존 중앙버스정류소 바로 인근에 가로변 정류소를 신설하고, 버스 노선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1개 도로에 버스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- 대광위, 경기도 등과 함께 2월 중 협의를 실시하고, 올해 상반기 중 추진 예정이다.



□ 그간 버스 집중으로 혼잡이 높았던 강남역과 신논현역, 사당역도

경기도와 협의하여 상반기 내 정류소 조정, 연내 노선 조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관리에 돌입할 예정이다. 강남역의 경우 중앙정류소로의 노선 집중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에 위치한 3개 가로변 정류소로 같은 방향의 버스 노선을 분산, 이전을 추진한다.

- 현재 대부분의 노선이 중앙차로 1개 도로에 노선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. 인근 가로변 정류소인 강남역서초현대타워앞(22-652), 강남역 도시에빛(22-600), 강남역티월드(22-654) 등 인근 가로변 정류소 방향으로 정차 위치를 이전하면, 승객 집중으로 인한 승하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◎ 강남역 정류소 조정(안)



□ 신논현역도 마찬가지로 그간 통행 집중이 높았던 곳으로, 퇴근시간대 보행 안전을 확립할 수 있도록 현재 밀집 정류소에 계도 요원 배치를 완료한 상태다. 또한 상반기 중에는 5개 노선의 정차 방향을 인근 정류소로 이전하는 등 차량 분산도 실시해 집중 탑승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.

○ 퇴근시간대 (17~21시)에 집중이 높은 금강빌딩(22-409), 주류성빌딩(22-406), 인터파크(22-411) 정류소를 대상으로 모범운전자 계도요원 배치를 완료했다.

◎ 신논현역 정류소 조정(안)



- 사당역은 혼잡도가 높은 사당역9번출구앞 정류소에 계도요원을 배치하고, 상반기 중에는 1개 노선을 사당역4번출구앞 정류소로 이전하여 혼잡도를 완화할 예정이다.
- 퇴근시간대(17~21시)에 사당역9번출구앞(20-253) 정류소에 모범 운전자 계도요원 배치하여 보행 안전 및 질서 관리를 하고 있다.



- 이에 더해 광역버스의 혼잡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도 지속한다. 노선 조정의 경우, 광역버스 면허권자인 대도시권

광역교통위원회 및 경기도와의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, 관계기관 실무 협의체를 통해 운행경로 변경 등 노선 집중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.

- 우선적으로 명동입구의 경우 5개 노선은 운행경로 변경을 통해 인근 지역에서 회차토록 조치하고, 2개 노선은 명동입구 정류소 무정차 통과 등의 방안을 마련해 과다 집중된 노선을 분산하도록 할 예정이다.

- 아울러, GTX-A 3월 개통을 시작으로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대광위와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.

-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“도로 용량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류장에 광역버스 등 다수 노선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어 승객 탑승 시 불편뿐만 아니라 무단횡단 등 안전 우려 사항도 발생하고 있다”며 “수도권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라도 정류소 분산 및 노선조정 등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, 대광위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혼잡도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